

## 1000만 달러보다 더 값진 기부



▲ 남편 레이(오른쪽)와 생전의 바바라 래그(왼쪽)

영국 셰필드 출신 '레이' (80)와 '바바라 래그' (77) 부부의 사연이 진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들이 일약 유명인사가 된 것은 지난 2000년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면서다. 당시 부부는 무려 760만 파운드(약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당첨금을 수령하며 인생역전이라는 꿈을 이뤘다. 부부는 당첨된 지 몇 주도 안돼 당첨금의 절반을 가족과 친구, 17개 자선단체에 골고루 기부했다. 이들의 선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후에도 계속 기부를 펼쳐 액수는 총 500만 파운드를 넘어섰다. 이같은 부부의 선행 덕에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와 노인 등 주민 수천 명이 특별한 혜택을 누렸다.

당첨 직후 인터뷰에서 바바라는 "760만 파운드라는 돈은 5-60대 부부가 쓰기에 너무나 큰 돈"이라면서 "돈을 받자마자 기부할 것을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가족이지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부에게 위기가 닥친 것은 5년 전이다. 부인 바바라가 유방암을 포함한 각종 질환으로 병상에 누웠기 때문이다. 결국 5년 간의 긴 투병 끝에 바바라는 지난 21일 세상을 떠났다.

남편 레이이는 "생전 부인은 너무나 따뜻한 심성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친절과 사랑이라는 그녀의 유산은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 교도관도 죄수복도 없는 브라질 교도소

감시하는 교도관도, 무기도 없는 교도소가 지난 3월 범죄발생을 4위에 이르는 '범죄대국' 브라질에서 문을 열었다.

영국 BBC가 22일 소개한 이 교도소는 여성 죄수들만 수감하는 곳으로, 재소자들은 수인복을 따로 입지 않는다.

이들을 감시하는 교도관이나 무기도 없다. 외출이나 교육 등을 돕는 최소한의 관리자만 있을 뿐이다. 일반 교도소에서는 금지돼 있는 거울도 소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을 할 수도 있다.

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재소자들은 기존 교도소에서 규칙을 성실하게 따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하며, 새로운 교도소에서의 교화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돼 새 교도소로 이감된 26세 여성 '리마'는 12년 형을 받고 일반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보내던 중 이감됐다.

그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인복에 적힌 번호가 아닌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른다"면서 "이 교도소



▲ 브라질 Apac 교도소 내부와 수감자 모습 (사진=BBC)

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 있고 언제든 가족들이 면회를 올 수 있다. 다만 교도소에서 내에서 받는 교화 프로그램 및 할당된 노동량은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도소를 지지한다는 브라질 법무부 관계자는 "이 교도소의 시스템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현존하는 브라질 교도소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중국 대학도서관 '미니스커트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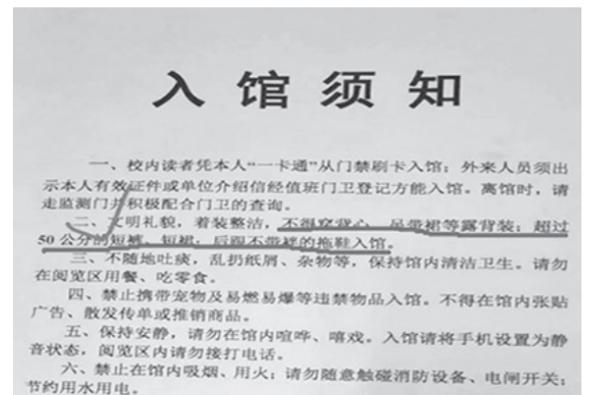
중국의 한 대학이 여학생들에게 짧은 치마를 금지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동영상공공유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은 학교 측을 상대로 '짧은 치마 금지' 방침을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후난성에 있는 후난농업대학 측은 얼마 전부터 허리에서 50cm 미만 길이의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에게는 도서관 출입을 금지하는 방침을 시행해 왔다.

해당 규칙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도서관 입구에서 관리자로부터 출입을 제재당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짧은 치마뿐만 아니라 어깨가 드러나는 홀터넥 원피스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해당 대학의 한 학생이



▲ 초미니스커트, 반바지, 어깨나 등이 드러나는 옷을 입지말라는 내용의 도서관 출입 규정

해당지역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학생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도서관을 오가는 것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게 그 이유였다.

학생들의 반발로 '짧은 치마 금지' 방침은 해제됐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www.suhl.com  
info@suhl.com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of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I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